



주 제:	“감사와 나눔”	“ 한가위 ”	2008년 9월 14일
복음 묵상:	루가 12,15-21	요엘 2,2-24,26	묵시 14,13-16

외국에 있다든지, 한국에 있으면서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한가위의 풍경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겨운 감사와 나눔에 동참하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한가위는 그 해에 거두어 들인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음식들을 이웃들과 서로 나누어 먹으며 즐겁게 하루를 지냅니다. 한가위에 우리가 맛보는 음식들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땀을 흘린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된 결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또한 결실을 다른 이들과 풍요롭게 나누는 날입니다.

한가위는 감사의 명절입니다. 한가위에 지내는 차례의 의미는 무엇보다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힘들게 수확한 오곡백과는 노동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땅과 비와 햇빛이라는 자연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느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차례를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는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선조들이 문헌 산소에 찾아가 성묘를 하며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모님과 은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함입니다.

한가위는 감사와 함께 나눔의 명절입니다. 차례상을 물리고 함께 자리한 가족들이 풍성하게 차려진 한가위 음식들을 나눕니다.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떨어져서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담을 나눕니다. 풍요로운 음식이 나누어지고,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애환이 나누어지는 자리입니다. 한가위가 풍성한 것은 음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는 까닭입니다. 감사와 나눔으로 모두가 하느님을 닮은 풍요로운 마음을 지니는 한가위이기를 기원합니다. (서울 김 영춘 신부님 강론에서)

###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2008년 성가대 피정(9/13)이 잘 진행되어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은혜중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와 참가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재훈 세실리아 자매님과 김 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채 간병중에 있어오니 하루 빨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중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탐욕에도 빠져 들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사람이 제아무리 부요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하시고는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며 혼자 궁리하다가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 두어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 가리라. 그러니 네가 쌓아 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고 하셨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1분 명상

♡"보름달"♡



밤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저 아름다운 보름달과 같이,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마음도  
늘 두리 몽실하게 넉넉함으로...

행복하게 웃을 수 있기를...  
아름다운 사랑 꽃피우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빌어 봅니다.

하루, 하루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에서 행복을 찾기보단  
적은 것에서 부터  
행운을 찾을 수 있는  
풍성한 추석이 되소서.

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참 좋은 날 행복 가득한 날들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검소하면서도 마음이 풍요로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중추절 한가위가  
더욱더 보람되고 여유로운  
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